

# 『시경(詩經)』의 부·비·흥(賦比興)의 사유방식(思惟方式) 연구

박순철 \*

- 
- 一. 들어가는 말
  - 二. 부·비·흥의 사유방식
    - 1. 부적 사유(賦的 思惟)
    - 2. 비적 사유(比的 思惟)
    - 3. 흥적 사유(興的 思惟)
  - 三. 맺는 말
- 

## ■ 국문요약

『시경』에는 전통적으로 표현수법과 시를 짓는 방법으로 부·비·흥(賦比興)이 있다. 『모전(毛傳)』 본문에는 흥(興)에 대한 표시만 있는데 모두 116곳이다. 작품 수는 「국풍(國風)」 70편, 「소아(小雅)」 40편, 「대아(大雅)」 4편, 송(頌) 2편으로 총 106편이다. 이와 같은 부·비·흥에 대하여 동한(東漢)의 정현(鄭玄)이 『주례주·태사(周禮注·大師)』에서 처음으로 주석을 붙이고, 공영달(孔穎達)이 “부·비·흥은 시에서 사용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공영달 이후에 여러 학자들의 주석이 있었다. 이러한 주석들을 참조하여 부·비·흥의 사유방식을 분석한 결과, 그 사유의 특징은 형상사유(形象思惟)였다.

형상사유는 자연경물(自然景物)을 보고 감흥(感興)을 일으켜 그 자연물에 자신의 정지(情志)를 의탁(依託)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자연경물

---

\* 전북대학교 / E-mail: unshan@hanmail.net

을 시속에서 형상화(形象化)하여 자신의 정지를 표현하다. 즉 자신의 추상적(抽象的)인 정지(情志)를 구체적(具體的)인 형상(形象)으로 만들어 표현하고 형상이 소조(塑造)된 이후에는 그 형상만으로 사유하여 자신의 뜻을 표현한다. 이러한 사유방식은 시경시대 이전에는 없었던 관념과 사유방식으로 이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창조되었고 이후의 시문학(詩文學)의 전통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어 중국 시문학의 커다란 특징이 되었다.

**주제어:** 詩經, 自然物, 賦比興, 形象, 形象化, 感情移入, 形象思维

## 一. 들어가는 말

『시경(詩經)』에는 전통적으로 시를 짓는 방법과 표현수법으로 부·비·흥(賦比興)이라는 것이 있다. 부·비·흥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으로는 『주례』 「춘관(周禮·官)」에 “태사(大師)가 육시(六詩)를 가르쳤다”<sup>1)</sup>라는 내용이 있다. 『모시대서(毛詩大序)』에서는 이를 육의(六義)<sup>2)</sup>라고 불렀는데 풍·부·비·흥·아·송(風賦比興雅頌)이라고 하였다. 『모시대서』에는 풍·아·송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부·비·흥에 관한 설명은 없다. 『모전(毛傳)』 본문에는 흥(興)만을 표시하였는데 모두 116곳이다. 작품 수는 「국풍(國風)」 70편, 「소아(小雅)」 40편, 「대아(大雅)」 4편, 송(頌) 2편으로 총 106편이다.<sup>3)</sup>

이와 같은 부·비·흥에 대하여 동한(東漢)의 정현(鄭玄)이 『주례(周禮)』 「태사주(大師注)」에서 처음으로 주석을 붙이고<sup>4)</sup>, 공영달(孔穎達)

1) 『周禮·春官』: “大師教六詩曰風曰賦曰比曰興曰雅曰頌”.

2) “詩有六義焉 一曰風二曰賦三曰比四曰興五曰雅六曰頌”.

3) 王應麟, 『困學紀聞』, 三 引吳泳的統計.

4) 『周禮』·「大師」注: 「賦之言鋪 直鋪陳今之政教善惡 比 見今之失 不敢斥言 取比類以言 志 興見今之美 嫌於媚諛 取善事以喻權之」.

이 “부·비·흥은 시에서 사용하는 것이다.”<sup>5)</sup>라고 주석을 붙인 이후 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설명이 있었다. 부·비·흥 중에서 부와 비는 표현 수법이고 흥은 시를 짓는 방법으로 세 가지 수법은 모두 자연물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지(情志)를 표현하고 있다. 특히 비와 흥은 직서(直敘)하는 부와 차별되는 수법으로 그 속에 예술적 사유방식이 더욱 농후하게 내재되어 있다. 즉 비와 흥은 예술적 구상을 하는 특별한 사유방식으로 시적 사유(詩的思惟)라고 할 수 있다.<sup>6)</sup> 다시 말하면, 자연경물을 보고 감흥을 일으켜 자연경물을 활용하여 형상을 만드는 사유방식을 통하여 자신의 정지(情志)를 표현하는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밝힌 논문은 거의 없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의 부·비·흥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주석을 살펴 분석한 다음, 그 특징을 규명하여 비·흥의 특징이 형상사유를 통하여 창조된 예술적인 시적 표현방식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 二. 부·비·흥의 사유방식

### 1. 부적 사유(賦的思惟)

동한 정현은 『주례(周禮)』 「태사주(大師注)」에서 “부의 뜻은 편다는 것이니 눈앞의 정치교화의 선악을 직접 진술하는 것이다.”(賦之言 鋪直鋪陳今之政教善惡)라고 했는데, 부에 대한 최초의 설명이다. 정현이 부의 뜻을 ‘편다.’는 뜻으로 정의한 점은 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를 정치의 득실만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한 것은 한계라고

5) “賦比興是詩之所用”.

6) 李湘, 「也談“賦, 比, 興”」(『河南師大學報』, 1980 제6期) 86쪽 참조.

할 수 있다. 부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의 견해와 실제 작품을 살펴보면 부의 작법으로 쓰여진 『시경』 시가 정치의 득실만을 읊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현 이후 여러 학자들은 부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서진(西晉)의 집우(摯虞)는 『문장별류(文章流別論)』에서 “부라는 것은 펴서 진술한다는 말이다.”(賦者 敷陳之稱也)라고 정의한 뒤, 부자(賦字)의 뜻을 설명하여 부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를 밝혔다. 지우 이후에 부에 대한 견해를 밝힌 대표적인 학자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종영(鍾嶸): 그 일을 직접 쓰고 말을 다하여 사물을 묘사하는 것이 부이다.<sup>7)</sup>

유협(劉勰): 부는 서술하는 것이니 문체를 서술하여 사물을 묘사하고 정지(情志)를 표현하는 것이다.<sup>8)</sup>

공영달(孔穎達): 시문에서 그 일을 직접 서술하고 비유가 없는 것이 부사(賦辭)이다.<sup>9)</sup>

주희(朱熹): 부는 그 일을 서술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sup>10)</sup> 그 이름을 직접 지적하고 그 일을 직접 서술하는 것이 부이다.<sup>11)</sup>

이중몽(李仲蒙): 사물을 서술하여 정(情)을 말하는 것을 부라고 이르니 정은 사물을 서술함으로써 다 표현된다.<sup>12)</sup>

상기한 내용에서 부(賦)에 대한 자의(字意) 해석은 거의 비슷하지만 설명하는 대상은 서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원문의 말을 그대로 근거로 살펴보면 “기사(其事)”와 “물(物)”의 차이가 있다. “기사”라고

7) “直書其事 盡言寫物 賦也”(『詩品』).

8) “賦者 鋪也 鋪采摛文 體物寫志也”(『文心雕龍』·「詮賦」).

9) “詩文直陳其事 不譬喻者 賦辭也”(『毛詩正義』).

10) “賦者 敷陳其事而直言之也”(『詩集傳』).

11) “直指其名 直敘其事者 賦也”(『朱子語類』).

12) “序物以言情 謂之賦 情盡物也(王應麟 『困學紀聞』 引用).

말할 때는 인사(人事)에 중점을 둔 것이고 “물”이라고 말할 때는 외부 사물에 중점을 둔 것으로 서술하는 대상은 사건과 자연물이다. 그러나 두 단어는 매우 포괄적이어서 사회와 정치의 현상일 수도 있고 자연경물일 수도 있으며, 시인의 사사로운 감정과 의지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앞에서 언급한 모든 일이 융합된 복합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표현대상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일 그리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외부사물 전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부(賦)의 작법(作法)에서 중시할 점은 유협(劉勰)과 이중몽(李仲蒙)이 설명한 것처럼 어떤 외부의 사물을 서술함으로써 자신의 정지(情志)를 표현하려고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부의 수법은 객관적인 외부 사물의 모습을 서술하려는데 중점이 있는 것 아니라 그런 외부 사물을 서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신의 정지를 표현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부의 수법에는 사물 특히 자연경물의 묘사가 매우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부의 이런 특징으로 인하여 경(景)과 정(情)을 교직(交織)하여 표현하는 정경상교(情景相交)의 수법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수법의 특징은 자연경물(自然景物)을 묘사함으로써 정(情)이 경중(景中)에 있도록 하여 경(景)과 정(情)이 서로 융합되도록 함으로써 경(景)에서 정(情)을 보고 정(情)에서 경(景)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彼爾維何	저 환한 것은 무엇인가
維常之華	아가위 꽃이로다
彼路斯何	저 노거는 무엇인가
君子之車	군자의 전차로다
戎車旣駕	용거에 멩에를 맺었으니
四牡業業	네 필 수컷 말이 건장하도다

豈敢定居      어찌 감히 편안히 거처하리오  
一月三捷      한 달에 세 번 승리하리라

駕彼四牡      저 네 필의 수컷 말에 멩에를 하니  
四牡騤騤      네 필 수컷 말이 건장하도다  
君子所依      군자가 타는 것으로  
小人所腓      소인이 비호하는 바로다  
四牡翼翼      네 필 수컷 말의 행렬이 정돈되어 있는데  
象弭魚服      상아로 만든 활고자에 돌고래 가죽으로 만든 화살통이  
로다

豈不日戒      어찌 날마다 경계하지 않으리오  
玁狁孔棘      험윤의 난이 매우 급하도다

昔我往矣      옛날 나 떠날 때는  
楊柳依依      버들잎 파릇파릇 한들한들 했네  
今我來思      지금 돌아보니  
雨雪霏霏      진눈깨비 휘날리는데  
行道遲遲      가는 길 멀고멀어  
載渴載飢      목마르고 배고픔 뿐이네  
我心傷悲      내 마음 아프고 슬프나  
莫知我哀      내 슬픔 아는 이 없네

「小雅, 采薇 제4, 5, 6장」

「채미」 시편에 대하여 주희는 “수역(戍役)을 보내는 시(詩)이다. 수자리를 나갈 때에 고사리를 뜯어 먹으면서 돌아올 기한이 멀을 생각하였다.”<sup>13)</sup>라고 하였다. 이 시에서는 경(景)에 나아가면 정(情)을 볼 수 있고, 정을 통해 경을 짐작할 수 있다. 제6장 첫 두 구는 출정할 때의 경물을 쓴 것이고 그 다음 두 구는 돌아올 때의 경물을 쓴 것이다. 출정할

13) “此 遣戍役之詩 以其出戍之時 采薇以食 而念歸期之遠也”.

때는 봄날이었고, 돌아올 때는 눈 내리는 겨울이다. 출정할 때 본 부드럽고 약한 버들가지의 흔들거리는 모양을 묘사한 “의의(依依)”<sup>14)</sup>는 버들가지의 모양만을 묘사한 것은 아니다. 이 때 정인(征人)은 처와 자식 그리고 친한 사람들과 헤어지기 싫은 감정을 직접 서술하지 않고 “양류의의(楊柳依依)”라고 표현하여 그런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양류(楊柳)도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는 듯 서글프게 하늘거리며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것처럼 의인화(擬人化)하여 자신의 감정을 기탁한 것이다. 따라서 “양류의의”라는 표현을 표면상으로는만 보면 단순히 경물을 묘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슬픈 내 마음을 기탁한 경물로 자신의 서글픈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君子于役	임은 부역에 나아가
不知其期	그 기약을 알 수 없네
曷至哉	언제나 돌아오실까
雞棲于塹	닭은 헛대에 오르고
日之夕矣	날은 저물어
羊牛下來	양과 소도 집을 찾아오네
君子于役	임이 부역을 나갔으니
如之何勿思	어찌 그렇지 않으리오

君子于役	임께서 부역 나가심이어
不日不月	일월로 계산할 수도 없으니
曷其有佸	언제나 회합할거나
鷄棲于桀	닭은 말뚝에 깃들며
日之夕矣	해가 저물어
牛羊下括	소와 양이 내려오네

14) 依依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면 첫째, 盛貌(屈萬里的『詩經釋義』, 黃典誠의『詩經通譯新詮』), 둘째, 柳條柔弱隨風飄拂的樣子(程俊英의『詩經譯注』), 셋째, 柔拂貌(裴普賢의『詩經評註讀本』) 등이 있다.

君子于役     임께서 부역 나가심이여  
 苟無飢渴     진실로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말지어다  
                   「王風, 君子于役 2장」

이 시에 대하여 주희는 “대부(大夫)가 오랫동안 밖에 부역을 가 있으니, 그 실가(室家, 부인)들이 그리워하여 읊기를, ‘군자(君子)의 부역가심이여, 돌아올 기약을 알지 못하겠으니, 지금은 어느 곳에 이르러 계시는가? 닭은 헛대에 깃들고, 날은 저물어 소와 양이 내려오네. 짐승들도 나가고 들어옴에 오히려 아침과 저녁의 절도가 있거늘, 부역 나간 군자(君子)는 휴식할 때도 없으니 나로 하여금 어찌 생각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sup>15)</sup>라고 하였다. 이 시는 자연형상을 묘사하여 모든 만물이 때가 되면 모두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임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서글픈 심정을 자연경물과 대비시켜 꺾진하게 묘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 2. 비적 사유(比的思惟)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시경』의 비(比)에 대한 주석을 통하여 비에 대한 정의를 고찰하고 자연경물과 무슨 연관성이 있으며 어떤 시유의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시경』의 비(比)자는 폐풍(邶風)에 배열된 「곡풍(谷風)」의 “비자우독(比于于毒)”이라는 시구에 가장 먼저 보인다. 이 시는 “나를 나쁜 독에 비교, 비유한다.”는 뜻으로 남편이 자신을 독(毒)에 비유하여 나쁘게 말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뜻은 『시경』에서 시의 표현수법으로 말하는

15) “大夫久役于外 其室家思而賦之曰 君子行役 不知其反還之期 且今亦何所至哉 鷄則棲于塒矣 日則夕矣 羊牛則下來矣 是則畜產出入 尚有旦暮之節 而行役之君子 乃無休息之時 使我如何而不思也哉”.

비의 의미와 대동소이하고 오늘날 말하고 있는 비유의 정의와도 거의 비슷하다.

정현은 『주례』 「춘관」의 “태사교육시(大師敎六詩)”라는 주(注)에서 “비는 지금의 실정(失政)을 보고 감히 배척하듯 말할 수가 없어서 유사한 종류를 취해 말하는 것이다.(比見今之失 不敢斥言 取類以言之)”라고 설명하여, 시와 정치를 연관시킨 뒤 정중(鄭衆)의 정의를 인용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중(鄭衆): 비는 사물에 자신의 뜻을 비유하고 빗대는 것이다.  
(比者 比方于物也) (『周禮』·「春官」鄭玄注 引用)

정중의 비에 대한 정의가 정현과 다른 점은 그 설명이 정치에 얽매이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물로 추상적 자신의 뜻을 비유하는 것으로 파악한 점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운용방법은 설명하지 않아서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

정중의 설을 계승한 당(唐)나라 공영달은 『모시정의(毛詩正義)』에서 “비는 사물에 비유하고 모방하는 것이다. 여자(如字)가 있는 모든 말은 비유하는 말이다.”(比者 比方于物, 諸言 “如”者皆比辭也)라고 부연하여 공영달이 정중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중과 공영달의 설은 송나라의 주희(朱熹)에 이르러 더욱 구체화되었는데 아래와 같다.

주희(朱熹): 비는 저 사물을 가지고 이 사물을 비유한 것이다.  
(比者 以彼物比此物也) 『詩集傳』

주희(朱熹): 비는 물(物)을 취하여 비를 만든다.  
(比則取物爲比) 『楚辭集注·離騷經 第一』

주희가 공영달보다 더욱 진일보하게 설명한 부분은 비유의 대상을 피물(彼物)과 차물(此物)의 양자의 관계로 파악한 것이다. 주희의 정의뿐만 아니라 비에 대한 다양한 설명에서 중점적으로 밝혀야 할 글자는 “물자(物字)이다. 이러한 “물자”의 특색을 밝히기 위하여 주희가 『시집전』에서 ‘비’라고 주석한 「중사(螽斯)」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螽斯羽	메뚜기 깃
詵詵兮	화목하게 모이니
宜爾子孫	너의 자손 번성함이
振振兮	마땅하리라

螽斯羽	메뚜기 깃
薨薨兮	무리지어 날며 소리내니
宜爾子孫	너의 자손
繩繩兮	끊이지 않음 마땅하리

螽斯羽	메뚜기 깃
蟄蟄兮	우글우글하니
宜爾子孫	너의 자손
蟄蟄兮	번성함 마땅하리라

「周南, 螽斯 3장」

주희는 우선 시에 나오는 여러 단어 중에서 “중사(螽斯)는 메뚜기 종류이다. 길고 푸르며 촉각이 길고 다리는 길다. 긴 다리를 서로 비벼서 소리를 내며, 한 번에 99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선선(詵詵)은 화(和)하고 모여 있는 모양이다. 이(爾)는 중사를 가리킨다. 진진(振振)은 성(盛)한 모양이다.”<sup>16)</sup>라고 주석을 붙인 다음, 시지(詩志)에 대하여, “후

16) “比也 螽斯 蝗屬 長而青 長角長股 能以股 相切作聲 一生九十九子 詵詵和集貌 爾指螽

비(后妃)가 투기(妬忌)를 하지 않아 자손이 매우 많았다. 때문에 많은 첩들이 매뚜기가 무리지어 화려하게 모여 있고 자손이 많은 것으로써 자손이 많은 것을 비유했으니, 그녀가 이와 같은 덕(德)이 있으므로 마땅히 이와 같은 복(福)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sup>17)</sup>라고 하였다. 주자의 이와 같은 설명을 근거로 살펴보면, 피물(彼物)은 종사(螽斯)이고, 차물(此物)은 원문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후비의 많은 자식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주희가 비에서 말한 ‘물(物)’의 의미가 사람과 자연경물을 포함한 만물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를 다시 검증하기 위하여 비(比)에 관한 제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영(鍾嶸): 사물을 가지고 뜻을 비유하는 것이 비이다.  
(因物喻志 比也) 『詩品·序』

이중몽(李仲蒙): 사물을 찾아 자신의 정(情)을 기탁(寄託)하는 것을 비라고 말하니 정(情)을 사물에 붙이는 것이다.  
(索物以託情 謂之比 情附物也) (王應麟 『困學紀聞』 引用)

지우(摯虞): 비는 비슷한 종류를 비유하는 말이다.  
(比者 喻類之言也) 『文章流別論』

위경지(魏慶之): 비는 만물을 끌어대어 비슷한 종류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比者 引物連類) 『詩人玉屑』

斯也 振振盛貌”.

17) “后妃 不妬忌 而子孫衆多 故衆妾 以螽斯之群處和集 而子孫衆多 比之 言其有是德 而宜有是福也”.

종영과 이중몽은 비자(比字)를 설명할 때 주희처럼 ‘물자(物字)’를 썼는데 이는 ‘물(物)’의 의미가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만물임을 간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우와 위경지는 비의 수법을 비슷한 종류끼리 연결 지어 표현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비에 대한 여러 설을 참고하여 비의 수법을 정의하여 보면, 비는 서로 비슷한 점이 있는 피물과 차물을 연관시켜 자신의 정지를 표현하는 수법임을 알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직유

직유는 시구에 ‘여(如)’같은 비유자(比喻字)가 있는 경우이다.

有女如玉      옥같이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  
「召南, 野有死麋」

有力如虎      힘이 호랑이같다.  
「邶風, 簡兮」

手如柔荑      손은 부드러운 띠풀싹 같고  
膚如凝脂      살결은 영긴 기름 같고  
領如蝤螭      목은 흰 나무벌레 같고  
齒如瓠犀      이는 박씨처럼 희며 가지런하네  
「衛風, 碩人 제 2장」

상기한 시는 전부 ‘여자(如字)’라는 비유자(比喻字)를 써서 자신의 뜻을 표현했다. 인용한 「석인(碩人)」 시편은 참신하고 생동감 넘치는 비유로 장강(莊姜)의 아름다운 모습을 눈앞에서 보듯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 2) 은유

은유는 ‘여(如)’같은 비유자(比喻字) 없이 보조 관념만으로 자신의 뜻을 표현한 경우이다.

螽斯羽	메뚜기 깃
詵詵兮	화목하게 모이니
宜爾子孫	너의 자손
振振兮	번성함이 마땅하리라

「周南, 螽斯 제 1장」

「중사」는 오늘날 은유의 수법으로 시의 내용은 많은 메뚜기를 표현하고 있지만 이를 통하여 메뚜기처럼 많은 자손이 있기를 기원하는 소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叔于田	숙이 사냥을 나감에
乘乘馬	네 마리 마차를 타고 가네
執轡如組	고삐잡기를 싣타래 놀리 듯 하니
兩驂如舞	두 참마는 춤을 추는 듯 하네

叔于田	숙이 사냥을 나감에
乘乘黃	누런 네 마리 마차를 타고 가네
兩服上襄	두 필의 복마가 앞에서 끌고
兩驂雁行	두 필의 곁마는 나란히 가네

「鄭風, 大叔于田 제 1, 2 장」

제1장의 ‘여조(如組)’, ‘여무(如舞)’는 직유이고 제2장 “안행(雁行)”은 은유로 나란히 사이좋게 사냥을 나아가는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

碩鼠碩鼠	큰 쥐야 큰 쥐야
無食我黍	우리 기장 먹지 말라
三歲貫女	삼년 동안 너를 섬겼거늘
莫我肯顧	나를 즐겨 생각지 않을진대
逝將去女	떠나 너를 버리고
適彼樂土	저 즐거운 땅으로 가련다
樂土樂土	즐거운 땅 즐거운 땅이여
爰得我所	여기서 내 살 곳 얻을 수 있으리라

碩鼠碩鼠	큰 쥐야, 큰 쥐야
無食我麥	내 보리를 먹지 말지어다
三歲貫女	삼년 동안 너를 익숙히 하였는데도
莫我肯德	나에게 즐거이 은덕을 베풀지 않을진댄
逝將去女	떠나가 장차 너를 버리고
適彼樂國	저 즐거운 나라로 가리라
樂國樂國	즐거운 나라여, 즐거운 나라여
爰得我直	나에게 적당한 곳을 얻으리라

碩鼠碩鼠	큰 쥐야, 큰 쥐야
無食我苗	내 곡식 싹을 먹지 말지어다
三歲貫女	삼년 동안 너를 익숙히 하였는데도
莫我肯勞	나를 즐거이 노고했다고 아니할진댄
逝將去女	떠나가 장차 너를 버리고
適彼樂郊	저 즐거운 들녘으로 가리라
樂郊樂郊	즐거운 들녘이여, 즐거운 들녘이여
誰之永號	누구 때문에 길이 부르짖겠는가

「魏風, 碩鼠 3장」

이 시에 대하여 주희는 “백성이 탐욕스럽고 잔혹한 정사에 곤궁하였다. 그러므로 큰 쥐가 자기를 해친다고 가탁하여 말하고 떠나간 것이다.(民困於貪殘之政 故託言大鼠害己而去之也)”라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말하면, 이 시는 쥐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묘사하여 위정자의 탐욕과 잔인함, 기생하는 본심, 민중의 저항의식을 심도 있게 형상적(形象的)으로 표현한 것이다.

鴟梟鴟梟      치효야 치효야  
 既取我子      이미 내 자식 잡아 먹었으니  
 無毀我室      나의 집은 허물지 말라  
 恩斯勤斯      사랑과 부지런함으로  
 鸞子之閔斯      이 자식들 기르느라 근심했네

迨天之未陰雨 하늘이 아직 굿은비를 내리지 않았을 때  
 徹彼桑土      저 뽕나무 뿌리를 가져다가  
 綱繆闢戶      창과 문을 단단히 엮어 놓으면  
 今女下民      지금 너의 아래 백성들이  
 或敢侮予      혹시라도 감히 나를 업신여기겠는가

予手拮据      내 손을 부지런히 놀려  
 予所捋荼      물억새 이삭을 가져왔고  
 予所蓄租      쌓고 모은 재산이라네  
 予口卒瘁      내 입이 다 병든 것은  
 曰予未有室家 내가 아직 집을 완성하지 못해서니라

予羽譙譙      내 깃이 모지라지며  
 予尾翛翛      내 꼬리가 헤어지고  
 予室翹翹      내 집이 위태위태하거늘  
 風雨所漂搖      비바람에 나부끼고 흔들려서  
 予維音嘒嘒      내가 울음소리를 다급히 하는 것이네

「鴟梟 제1, 4장」

이 시에 대하여 주희는 “무왕(武王)이 상(商)나라를 정복하고, 아우인

관숙(管叔) 선(鮮)과 채숙(蔡叔) 도(度)로 하여금 주왕(紂王)의 아들인 무경(武庚)의 나라를 감시하게 하였는데, 무왕(武王)이 붕어하고 성왕(成王)이 즉위하여 주공(周公)이 돕자,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은 무경(武庚)을 데리고 배반하였으며, 또 국중(國中)에 유언(流言)을 퍼뜨려서 ‘주공(周公)이 장차 유자(孺子)에게 불리(不利)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주공(周公)이 동쪽 지방을 정벌한 지 2년 만에 마침내 관숙(管叔)과 무경(武庚)을 잡아 주벌(誅罰)하였으나, 성왕(成王)은 아직도 주공(周公)의 뜻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공(公)이 마침내 이 시(詩)를 지어 왕(王)에게 바친 것이다. 새가 둥지를 사랑함을 가탁하여 치효(鷦臯)를 불러 이르기를, ‘올빼미야! 올빼미야! 네가 이미 내 새끼를 잡아갔으니, 다시 내 집을 부수지 말지어다. 내 사랑하는 마음과篤후(篤厚)한 뜻으로써 이 새끼를 기름에 진실로 가련하고 근심할 만하거늘 이제 이미 잡아갔으니, 그 폐해가 심하다. 하물며 또다시 내 집을 부수단 말인가.’라고 하였으니, 이로써 무경(武庚)이 이미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을 실패하게 하였으니, 다시 우리 왕실(王室)을 훼손해서는 안됨을 비유한 것이다.”<sup>18)</sup>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시는 치효의 간절한 호소를 통해 잔인하고 사나운 통치자가 폭력으로 백성을 핍박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죄상을 고발하고 백성이 이미 곤경과 어려움에 빠졌음을 표현했다. 시 속에서는 악조(惡鳥)인 치효로 통치자를 비유했는데 상호간의 비슷한 흉포한 점을 취한 것이다.

18) “武王克商 使弟管叔鮮 蔡叔度 監于紂子武庚之國 武王崩 成王立 周公相之 而二叔以武庚叛 且流言於國曰 周公 將不利於孺子 故周公東征二年 乃得管叔武庚而誅之 而成王猶未知公之意也 公乃作此詩以貽王 託爲鳥之愛巢者 呼鷦臯而謂之曰 鷦臯鷦臯 爾既取我之子 無更毀我之室也 以我情愛之心 篤厚之意 嚮養此子 誠可憐憫 今既取之 其毒甚矣 況又毀我室乎 以比武庚既敗管蔡 不可更毀我王室也”.

### 3) 환유

환유는 사물의 일부분을 취하여 그 사물과 비슷한 점이나 관계가 있는 다른 어떤 것으로 표현하는 비유법이다. 예를 들면 “문필로 흥 한자는 영원하다.”의 ‘문필’은 문화를, “저 사람 별이다.”의 ‘별’은 장군을 의미하면 환유이다. 또한 소아(小雅)의 「기부(祈父)」의 “홀륭한 기보여, 나는 왕의 손톱이요 이빨이로다.”(祈父, 予王之爪牙)에서 ‘조아(爪牙)’는 용맹스런 용사임을 환유 수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 4) 의인화

天生烝民	하늘이 많은 백성을 낳으니
有物有則	사물마다 법칙이 있도다
民之秉彝	백성이 떳떳한 천성이 있어
好是懿德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도다
天監有周	하늘이 주나라를 살펴서
昭假于下	밝은 덕으로 아래에 임하여
保茲天子	이 천자를 보우하고자
生仲山甫	중산보를 낳았도다

仲山甫之德	중산보의 덕이
柔嘉維則	유순하고 아름다움의 준칙이 되니
令儀令色	위외와 안색이 홀륭하고
小心翼翼	조심하며 공경하고
古訓是式	고훈을 본받으며
威儀是力	위외를 힘쓰고
天子是若	천자에 순종하여
明命使賦	밝은 왕명을 널리 퍼지게 하도다

王命仲山甫 왕이 중산보에게 명하여

式是百辟	모든 제후에게 모범이 되게 하여
纘戎祖考	그들로 하여금 선조를 계승토록 하여
王躬是保	왕의 몸을 보호하게 하도다
出納王命	왕명을 내고 들이니
王之喉舌	왕의 후설이며
賦政于外	밖으로 정사를 베푸니
四方爰發	사방이 따라서 분발하도다

肅肅王命	엄숙하고 엄숙한 왕명을
仲山甫將之	중산보가 받들어 행하며
邦國若否	국가의 정사를 잘하고 못함을
仲山甫明之	중산보가 밝히도다
旣明且哲	사리에 밝고 일을 살피어
以保其身	그 몸을 보호하고
夙夜非解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게을리하지 않아
以事一人	천자 한 사람만 섬기도다

「大雅, 蒸民 제1, 2, 3, 4장」

주희는 이 시에 대하여 “선왕(宣王)이 번후(樊侯)인 중산보(仲山甫)에게 명하여 제(齊)나라에 가서 성을 쌓게 하였는데 윤길보(尹吉甫)가 시(詩)를 지어 그를 전송하였다. 하늘이 여러 백성을 낳음에 이 사물이 있으면 반드시 이 법(法)이 있으니, 백해(百骸), 구구(九竅), 오장(五臟)으로부터 군신(君臣), 부자(父子), 부부(夫婦), 장유(長幼), 봉우(朋友)에 이르기까지 사물 아닌 것이 없으며 여기에는 법이 있지 않음이 없다. 예컨대 봄의 눈 밝음, 들음의 귀 밝음, 모습의 공손함, 말함의 순함과 군신 간(君臣間)의 의(義), 부자 간(父子間)의 친(親)함이 있는 것이 이런 것이니, 이는 바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뉘뉘한 성품(性品)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심정적으로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지 않는 자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하늘이 주(周)나라를 굽어살피고 소명(昭明)한 덕(德)

으로 아래에 강림하였다. 그러므로 천자를 보우(保佑)할 사람으로 어진 중산보(仲山甫)를 태어나게 하였으니 그가 빼어난 기(氣)를 모아 받아 아름다운 덕(德)을 온전히 갖추었으니 다만 범민(凡民)과 같을 뿐만이 아니다. 옛날에 공자(孔子)가 『시경(詩經)』을 읽다가 이 시구에 이르러 칭찬하기를, ‘이 시(詩)를 지은 자는 그 도(道)를 알 것이다. 그러므로 사물이 있으면 반드시 법(法)이 있으니, 사람들이 떳떳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덕을 좋아한다.’라고 하였는데, 맹자(孟子)가 이를 인용하여 성선(性善)을 증명하였으니, 그 뜻이 깊다. 이 시를 읽는 자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sup>19)</sup>라고 하였다. 이 시는 의인화 수법을 사용하여 하늘(天)을 부모에 비유하고 하늘(天)이 백성을 낳았다고 표현하였다.

### 3. 흥적 사유(興的思惟)

부·비·흥 중에서도 역대로 가장 논란이 많고 지금까지도 하나의 확실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시작법은 흥(興)이다. 흥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설문해자주(說文解字)』 주에서 허신(許慎)은 “흥(興)은 기(起)이다”(興起也)라 했고, 단옥재는 이를 참고하여 흥자(興字)에 대하여 『광운(廣韻)』을 인용하여 “흥(興)은 성, 거, 선이다(興, 盛也, 舉也, 善也)” 등 다양한 뜻이 있다고 했다. 『시경』에서 말하는 흥(興) 또한

19) “宣王 命樊侯仲山甫 築城于齊 而尹吉甫作詩以送之 言天生衆民 有是物 必有是則 蓋自百骸九竅五臟 而達之君臣父子夫婦長幼朋友 無非物也而莫不有法焉 如視之明 聽之聰 貌之恭 言之順 君臣有義 父子有親之類 是也 是乃民所執之常性 故其情 無不好此美德者 而況天之監視有周 能以昭明之德 感格于下 故保佑之 而爲之生此賢佐 曰仲山甫焉 則所以鍾其秀氣而全其德美者 又非特如凡民而已也 昔 孔子讀詩 至此而贊之曰 爲此詩者 其知道乎 故有物 必有則 民之秉彝也 故好是懿德 而孟子引之 以證性善之說 其旨深矣 讀者其致思焉”.

큰 범주에서는 ‘기(起)’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때 흥의 의미는 자연경물을 보고 감흥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모전』에서 ‘흥야(興也)’라고 주한 곳은 116곳이고, 작품 수는 「국풍」 70편, 「소아」 40편, 「대아」 4편, 「송」 2편으로 총 116편이다. 그런데 『모전』에서는 “흥야(興也)”라고만 주를 붙이고 흥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여러 시경학자들은 흥의 의미를 분석하여 많은 설을 남겼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현: “흥은 일을 물에 의탁하는 것이다.  
(興者 托事于物)(『周禮』·「春官」鄭玄注 引用))

공영달: 흥은 일을 물에 의탁하는 것이니 흥은 일으키는 것이다. 비슷한 것을 취하거나 비슷한 종류를 끌어와서 내 마음을 일으키고 발동시킨다. 시문에서 초목과 조수를 거론하여 내 뜻을 드러낸 것은 모두 흥사이다.  
(興者 托事于物 則興者 起也 取比引類 起發己心 詩文諸舉草木鳥獸以見意者皆興辭也)(『毛詩正義·卷一』)

유협: 흥은 정을 일으킨 것이다. 사물에 의탁하여 정서를 일으킨다는 것은 모종의 의미를 아주 은근하게 내포하고 있는 사물에 감정을 맡긴다는 뜻이다. 사물과의 접촉을 통해서 정서가 발생하기 때문에 흥을 이용하는 수법이 성립한다. … 흥은 비유함으로써 풍자를 한다.  
(興者 起也…起情者 依微以擬議情 故興體以立…興則環譬以托諷)(『文心雕龍』·「比興」)

주희: 흥은 타물(他物)을 먼저 말함으로써 읊고자 하는 말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興者 先言他物以引起所詠之詞也) 『詩集傳』

인용한 네 사람의 설을 종합하면, 흥은 일으킨다는 뜻으로 만물을 보고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을 만물에 의탁하여 자신의 정지를 표현하는 수법이다. 만물과 자신의 정지를 연결 짓는 방법은 서로 관련이 있는 비슷한 것을 들어서 연상하도록 함으로써 유관성을 확보한다. 유관성의 확보에서 주희가 상하구(上下句)의 유관성을 지적한 것은 진일보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주희는 흥의 수법이 타물(他物)과 소영지사(所詠之詞)라는 말로 서로 대칭되게 하였다. 서로 대칭되어 있는 ‘선언타물’과 ‘인기소영지사’의 연관성을 주희는 『주자어류(朱子語類)』에서 「관저(關雎)」시를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저구(雎鳩)는 모씨(毛氏)가 진지하면서도 유별하다고 여겼다……. 무릇 지(摯)는 지(至)와 뜻이 같으니 그 정의(情意)가 서로 깊고 지극 하되 친압한 적이 없음을 말한 것이니, 저 즐겁지만 음탕하지 않은 뜻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흥시(興詩)이다. 흥(興)은 기(起)이니 만물(자연물)을 끌어대어 나의 뜻을 일으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구는 정이 지극하지만 유별한 동물이고, 행채(荇菜)는 깨끗하고 부드러운 식물이니 오히려 흥으로 쓰더라도 심히 동떨어지지 않는다. 기타 시에는 상하구가 전혀 서로가 비슷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다만 다른 자연물을 빌려 나의 뜻만을 일으킬 뿐이니 비록 모두 흥이라도 「관저(關雎)」와는 또한 사뭇 같지 않다.”<sup>20)</sup>

주희는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흥의 정의에 따라 『시집전』에서 「관저」의 시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 “雎鳩 毛氏以爲摯而有別……蓋摯與至同，言其情意相與深至而未嘗狎，便見其樂而不淫之意。此是興詩。興起也。引物而起吾意。如雎鳩是摯而有別之物。荇菜是潔淨和柔之物。猶不甚遠。其他亦有全不相類。只借它物而起吾意者。雖皆是興。與「關雎」又略不同也”(『朱子語類』卷八十一)。

關關雎鳩 한 쌍의 저구새가 꾸욱 꾸욱 노래하며  
 在河之州 다정하게 황하의 모래밭에 노닐고 있네  
 窈窕淑女 암전하고 어여쁜 아가씨는  
 君子好逑 훌륭한 멋진 군자의 좋은 짝이라네

參差行棹 올망졸망한 행채를  
 左右流之 이리저리 물결 따라 따고 있던  
 窈窕淑女 암전하고 어여쁜 아가씨를  
 寤寐求之 자나 깨나 이리저리 구하네  
 求之不得 구하여도 구할 수 없으니  
 寤寐思服 자나 깨나 그리워하고 생각하네  
 悠哉悠哉 오래도록 애타고 애가 타서  
 輾轉反側 앞치락뒤치락하며 잠들지 못하네

參差行棹 올망졸망한 행채를  
 左右采之 이리저리 캐고 있던  
 窈窕淑女 암전하고 어여쁜 아가씨와  
 琴瑟友之 거문고와 비파를 타며 사귀네  
 參差行棹 올망졸망한 행채를  
 左右芼之 이리 저리 고르고 있던  
 窈窕淑女 암전하고 어여쁜 아가씨와  
 鐘鼓樂之 종치고 북치며 즐겁게 지내네

「關雎, 3장」

주희는 이 시에 대하여 “그 수법은 흥(興)이다. 관관(關關)은 자웅(雌雄)이 서로 상응하는 화기애애한 소리이다. 저구(雎鳩)는 물새이니, 일명은 왕저(王雎)이다. 모양이 부예(鳧鷖)와 유사하니, 지금 강(江)과 회수(淮水) 사이에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짝이 있어서 서로 난잡하게 하지 않고, 짝이 항상 같이 놀되 서로 친압(親狎)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전(毛傳)』에 이르기를 ‘정이 두터우면서도 분별이 있다.’라고 하

였고, 『열녀전(列女傳)』에는 “사람들은 일찍이 그 새들이 올라타 함께 있는 것을 본 자가 없다.”라고 하였으니, 그 천성(天性)이 그러한 것이다. 흥(興)은 먼저 다른 사물을 말하여 읊을 말을 일으키는 것이다. 관관(關關)은 화기에애한 소리이다. 저구(雎鳩)는 왕저(王鳩)이다. 새가 정(情)이 진지하지만 유별(有別)하다...후비가 군자의 덕을 즐거워하여 화해하지 않음이 없고 또한 그 미색을 음란하게 하지 않고, 신중하고 굳으며 그윽하고 깊은 마음가짐은 관저의 유별함과 같다...후비가 관저의 덕이 있어 유한(幽閒)하고 정숙한 착한 여자이니 마땅히 군자의 좋은 짝이 될 수 있음을 말했다.”<sup>21)</sup>라고 하였다.

주희의 설명을 요약하면, 시인이 황하의 물가에서 멀리 관저가 울고 물속에서 행채를 채취하고 있는 아가씨를 보았다. 그때 시인은 다정한 한 쌍의 관저가 노니는 모습을 보고 그 관저처럼 다정하게 지낼 수 있는 아가씨를 연상하였다. 이로 인하여 자신의 짝이 될 수 있는 아가씨는 ‘요 조숙녀’라고 읊었다. 또한 이어서 그 아가씨의 맵시는 그 아가씨가 채취하고 있는 날씬하고 깨끗한 행채와 같다고 다시 읊었다. 결론적으로 주희는 시인이 관저와 행채를 보고 정감을 일으키고 그 일어난 정감을 관저와 행채에 의탁하여 자신의 정지를 표현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흥적 사유방식은 시경시대 이전에는 없었던 수법으로 『시경』에서 비로소 나타난 수법이다.<sup>22)</sup>

21) “興也 關關 和聲也 雎鳩 王鳩也 鳥摯而有別.....后妃悅樂君子之德 無不和諧 又不淫其色 愼固幽深 若關雎之有別也...言后妃有關雎之德 是幽閒貞專之善女 宜爲君子之好逑”.

22) 조패림은 『흥적기원(興的起源)』이라는 책에서 『시경』 이전의 시의 특징에 대하여 “其一爲‘直言其情’，即將情志、懷抱、心理、願望等內心活動和內心狀態用陳述性的語言直接說出...其次，原始詩歌的另一種重要表現方式是‘直言其事’.”(趙沛霖 著，『興的源起』，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7. 179쪽~180쪽)라고 말하였다. 이는 『시경』 이전의 시는 대부분 직서하는 수법만 있고 『시경』처럼 비흥의 수법이 없음을 지적한 말이다.

### 三. 맺는 말

부·비·흥(賦比興)은 정지(情志)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물(物)을 사용하는데 그 물은 대부분 사물(事物)과 자연경물(自然景物)이다. 부는 자연물과 자연경물을 직접 묘사함으로써 자신의 정지를 직서(直敘)하는 방법이고, 비는 '비유하다'라는 뜻으로, 그 방법은 저 사물으로써 이 사물을 비유하는 것이다. 저 사물과 이 사물 사이에는 유사성 또는 동일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는 오늘날의 비유법처럼 양자 사이 즉 이것(原觀念: 本意)과 저것(補助觀念: 喻意) 두 사물 사이의 유사성 내지 동일성을 전제로 한 결합 방법이다. 흥은 흥구(興句)에서 자연물을 보고 감흥을 일으켜 그 자연물에 자신의 정지를 의탁(依託)하거나 이입(移入)시켜 형상화(形象化)된 자연물의 연상작용(聯想作用)을 통하여 응구(應句)의 내용을 암시하고, 응구에서는 흥구에서 암시(暗示)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관성(有關性) 있게 자신의 정지를 표현하는 수법이다.

부·비·흥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세 가지 수법은 표현수법인가 아니면 시를 짓는 작시법인가라는 논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와 비는 표현수법으로, 흥은 시를 짓는 작시법으로 판단하였다. 『시경』의 시구는 표현수법의 측면에서 보면, 모두 부구(賦句) 아니면 비구(比句)이고 흥구(興句)는 없다. 흥구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상하구(上下句)의 연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흥구는 상하구의 연결성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부와 비는 표현수법에 해당하고 흥은 시를 짓는 작시법이다. 흥은 부구와 비구를 바탕으로 그 의미가 표현되고 상하의 출구와 응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구의 출구가 하구의 응구의 내용을 암시 또는 연상하는 수법이다.

부·비·흥의 수법을 사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 사유방식은 자신의 정감을 자연물에 기탁하는 감정이입(感情移入)을 통하여 예술형상(藝術形象, 意象)을 창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외부의 자연경물(自然景物, 物象)에 감정을 이입시켜 자연물을 활용하여 시적으로 표현함으로써(形象) 그 형상에 비유와 상징을 투영하여 의상(意象)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방식은 한마디로 형상사유(形象思惟)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유방식은 자연경물(自然景物)을 보고 감흥(感興)을 일으켜 그 자연물에 자신의 정지(情志)를 의탁(依託)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자연경물을 시속에서 형상화(形象化)하여 자신의 정지를 표현한다. 즉 자신의 추상적(抽象的)인 정지(情志)를 구체적(具體的)인 형상(形象)으로 만들어 표현하고 형상이 소조(塑造)된 이후에는 그 형상으로만 사유하여 자신의 뜻을 표현한다. 이러한 사유방식은 시경시대 이전에는 없었던 사유방식으로 이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창조되었고, 이후의 시문학(詩文學)의 전통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어 중국 시문학의 커다란 특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朱熹 著, 朱傑人 外 2名 主編(2000), 『朱子全書』, 上海古籍出版社·安徽教育出版社.
- 金赫濟 編纂(2000), 『詩傳』, 明文堂.
- 成百曉 譯註(2006), 『詩經集傳』, 傳統文化研究會.
- 洪湛俊(2002), 『詩經學史』 上·下冊, 中華書局.
- 于新 著(2010), 『詩經研究概論』, 中國社會出版社.
- 戴維 著(2001), 『詩經研究史』, 湖南教育出版社.

- 朱孟庭 著(2012), 『詩經的多元闡釋』, 文津出版社.
- 錢穆 著(2002), 『朱子學提綱』, 三聯書店.
- 檀作文 著(2003), 『朱熹詩經學研究』, 學苑出版社.
- 鄒其昌 著(2004), 『朱熹詩經詮釋學美學研究』, 商務印書館.
- 莫礪鋒 著(2006), 『朱熹文學研究』, 南京大學出版社.
- 袁行需 외 2인(1994), 『中國詩學通論』, 安徽教育出版社.
- 실시학사 경학연구회(2008), 『역주 시경강의』 1, 2, 3, 도서출판 사암.
- 何海燕 著(2011), 『清代詩經學研究』, 人民出版社.
- 郭全芝 著(2010), 『清代詩經新疏研究』, 安徽大學出版社.
- 詹石窗(2002), 『中國哲學史』, 中國書店.
- 趙沛霖 著(1987), 『興的源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A Study on a Way of Thinking of fu · bi · xing in *shijing*

Park, Sun-Cheol\*

In the Book of Shijing, there is a traditional method of expression and composing poetry known as Fu, Bi, and Xing (賦比興). In the Mao Commentary (毛傳), only Xing (興) is mentioned, appearing 116 times. The total number of works includes 70 poems from the Guofeng (國風), 40 from the Xiaoya (小雅), 4 from the Daya (大雅), and 2 from the Song (頌), totaling 106 poems. Regarding Fu, Bi, and Xing, the Eastern Han scholar Zheng Xuan (鄭玄) was the first to annotate them in his commentary on the Zhou Li (Zhouli zhu·Da Shi), where Kong Yingda (孔穎達) later stated, "Fu, Bi, and Xing are used in poetry." After Kong Yingda, several scholars have written commentaries on these concepts. By referencing these commentaries, the way of thinking behind Fu, Bi, and Xing can be analyzed, and it is found that its characteristic thought process is xingxiang siwei (形象思維), or "figurative thinking."

Figurative thinking refers to the act of seeing natural scenery (自然景物), which evokes a feeling or inspiration (感興), and then projecting one's emotions or desires (情志) onto these natural elements. Through this, the natural scene is transformed into a figure within the poem, allowing the poet to express their emotions. In other words, abstract emotions are made concrete through figurative representations, and once the figure is shaped, the poet continues to contemplate and express their intentions solely through the figure. This way of thinking was not present before the Book of Songs era, but was created during this time, and became a significant and lasting tradition in

---

\*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E-mail: unshan@hanmail.net

Chinese poetic literature, continuing to develop as one of the defining characteristics of Chinese poetry.

### **Key Words**

shijing, natural object, bubixing, image, embody, empathy, embody thinking

논문접수일: 2024.12.04, 심사완료일: 2024.12.04, 게재확정일: 2024.12.18